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올해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 송구영신예배 때 나누던 말씀카드를 오늘 낮예배 후에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이번 주까지 모든 예배는 쉬겠습니다.
6. 이번 주 토요일(1/16) 청소담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17) 주일간식담당은 호산나 목장(강숙여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월 10일	1월 17일	1월 24일	1월 31일
예배기도(2부)		인도자	인도자	오진석 집사	이현호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호산나목장 (강숙여 권사)	에스더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목장 (황희용 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 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 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 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 주 토요일)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미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2021년  
1월 10일  
07-02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92번(새해2) 다같이
*경배찬송	19장(통 4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302장(통 408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인도자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왕하 2:1-14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묵은해답' 김묘상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같이
*축도	김묘상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

시편 18편 3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허영진 목사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늘문의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겨울단상

흰 소의 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폭설에 이은 한파로 인해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이래저래 힘들고 불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속적인 온기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교회 식당, 화장실 등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켜켜이 얼음이 얼었다. 그나마 수도물을 조금씩 틀어놓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배관이 막힐 뻔한 한 주였다. 내린 폭설은 또 어떨까. 차량이 오가는 도로나, 사람이 오가는 길이야 눈이라도 치웠기에 다니기가 수월하지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웅덩이 같은 곳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누군가는 좋은 추억이 될 듯싶겠지만, 또 누군가는 힘들 것이다.

겨울이 춥고 쌀쌀맞아 언뜻 싫게 느껴지지만 했는데 요즘 들어 은근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나목(裸木) 때문이다. 모든 옷을 벗어 버리고, 치장을 벗어 버린 채 잎사귀에 가려졌던 나무의 가지가 고스란히 보인다. 비단 그뿐이랴. 나무 가지 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와 함께 나무의 다양성도 볼 수 있다. 사계의 세 계절은 늘 길옆에 꼭 찬 나뭇잎에 가려서 그 속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삭풍이 몰아치는 지금처럼 나무가 치장을 다 벗은 몸이 되었을 때, 서로가 간격을 유지한 채 잘도 조화를 이루며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열린 공간 사이로 햇볕을 포용하듯 은빛 색깔을 반짝일 때면 나목을 통한 겨울이 가져다주는 선물 같기만 하다. 이런 자연의 선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그분의 호흡을 느끼는 듯하다.

이렇듯 나무도 서로에게 비켜줄 공간과 여유가 있을 때 서로에게 반사되는 색상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듯, 사람도 서로 비켜주고 기대줄 등이 된다면 이 삭막한 계절도 신의 아름다운 선물에 그 의미를 더할 것 같다. 그만큼 하나님은 작은 아이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만큼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이 끊어질 않으시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인생이든 남겨 놓은 파편의 흔적과 향취가 있게 마련이다. 이왕이면 악취보다 좋은 향기가 낫다. 마치 주님을 위해 나귀 새끼를 풀어가도록 허락했던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 남긴 흔적의 향취처럼 말이다.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 나목처럼 말이다.

Written by 허영진